

주체사상의 변화와 북한의 개혁

고 성 준*

목 차

- I. 내외환경의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
- II. 주체사상의 기능과 체제변화
- III. 개혁의 전망과 주체사상의 미래

I. 내외환경의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

지난 40여년간의 남북한의 냉전관계가 데탕트로 가는 조짐이 일고 있다. 시대를 역류하면서 남북한의 공존을 거부해 온 북한이 지난해 가을 UN정책의 전환을 기점으로 12월에 들어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수락하고 연말에 가서는 핵무기 개발포기의 뜻을 선언하는 「非核化 공동선언」에 동의하고 나섰다. 금년 4월 9일에는 북한최고인민회의가 국제원자력기구와 맺은 핵안전협정비준에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북한의 남북한 공존과 핵포기의사가 진정으로 확인되면 우선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도 진일보 될 것이다. 이에 맞추어 한-중수교가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져 동북아시아에는 국교없는 국가간 관계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어 동북아시아에 있어 평화질서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북한의 대외 및 대남정책의 변화는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어려운 경제사정의 타개 그리고 새롭게 구축되고 있는 세계정세에 적극 적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수 있다. 이와같은 최근의 북한정책변화는 종전과는 달리 한반도에 「2개의 한국체제」를 조속히 인정·유지하여 모든 면에서 남한에 비해 열세에 있는 북한체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목적에 기인한다. 그동안 북한은 '89년부터 일기 시작한 동구 공산정권의 붕괴와 '90년도에 이루어진 동독정권의 서독에의 흡수 등의 사태에 대단히 방어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북한은 외부의 변화 압력에 대해 '우리식대로 살자'는 전략을 내세워 대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우리식대로 살자'식의 대응으로 이를 되받아치기에는 북한에 밀려드는 경제 및 외교적 도전이 너무 벅찬 것이 되었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국가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한국과의 수교러시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현상을 확대시켰다.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노태우대통령 사이에 있는 제주도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강력한 우방인 중국도 한국과의 수교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어 북한은 이에 적극 대응할 상황에 처해있게 된 것이다. 소련의 내부사정으로 인한 소련-북한사이에 경제적 관계의 변화 역시 북한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예를 들어 소련은 지난해부터 그동안 행해온 석유공급에 대해 상계매입방식에서 현금결제 즉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는 태환성 경화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태환성 경화의 부족으로 소련으로 부터의 석유공급이 거의 안되고 있어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지난해에 비해 50%나 악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생산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그동안 북한의 대외경제 파트너로 59%를 점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보수파의 구테타실패 이후 소련은 붕괴되고 말아, 이제 형제국으로서의 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연결고리로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어야 하는 처지에 있게 됐으며, 그 대상을 일본으로 보고 조·일수교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다양한 채널로 접촉을 확대하는 것도 이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밖에 '80년 이래 연평균 3%의 낮은 성장에 머물다가, 작년에는 -3.7%의 성장을 나타내는 등 어려운 북한의 경제사정은 김정일 승계체제의 확립을 위한 주민들의 지지기반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 침체에 빠져있는 북한경제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개방 이외의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북한은 놓여 있다.

국제질서의 탈 냉전화와 동북아시아의 데탕트흐름 역시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새로운 도전현상이 하나이다. 양극체제의 준일극화, 경제력의 다국화, UN을 위시한 국제기구의 활성화, 냉전적 이데올로기의 쇠퇴경향 등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은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홀로서기'식의 대외정책을 추진함은 1990년대의 로빈슨쿠루스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질서는 동북아시아의 기존 흐름에 영향을 가해 새로운 추세를 보여주게 하고 있다. 제주도에서의 한·소 정상회담이 상징해주고 있는 탈 냉전화는 동북아의 정치 및 경제질서가 변화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아직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정치, 경제체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정할 수 없으나 그 기본방향은 상호 변영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과 교류의 확대임에 틀림 없다. 현재 거론되는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공동체 움직임은 바로 이러한 새질서의 형성이 이미 시작됐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체제는 어떤 변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걸까?

Ⅱ. 주체사상의 기능과 체제변화

주체사상은 북한의 유일 최고 무오류의 신성불가침한 국정이데올로기로 절대화되었으며, 모든 진리의 원천으로 신비화되었다. 오늘날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이외의 어떤 다른 사상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일찌기 마르크스, 레닌도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이론적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김일성을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적 권위위에 올려 놓고 있다.

주체사상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모든 정책을 형성 지도 제약하고 있다. 그러기에 북한이 내외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정책변화를 하려 할 때에는 우선 주체사상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하여 정책변화가 주체사상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통합성(ideological integrity)을 저해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체제의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의 정책변화의 방향과 내용 등을 분석해 볼 수 있다.

1. 주체사상의 기능

가. 순기능

1) 체제정당화 기능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세가지 맥락에서 고찰되어질 수 있다.

첫째로 주체사상을 평양정권이 분단이전 한반도의 합법적 계승자임을 주장함으로써 남한과의 체제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기도해왔다. 한국민족주의가 외세에 대한 저항정신의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북한이 미제로부터의 침략에 대항하여 성립된 체제임을 부각시키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과시해 왔다.

둘째로 김일성의 개인독재의 정당화이다.

주체사상의 김일성화와 더불어 김일성체제의 정당성의 근원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닌 김일성의 주체적 항일투쟁에 있음을 강조하여 김일성의 개인적 권위를 체제의 정당성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북한은 김일성을 유일신으로 만드는 종교국가의 형태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다.

셋째로 권력승계의 정당화이다. 김정일에 의해 시도된 주체사상의 체계화를 통하여 북한 정권은 김정일로 하여금 주체사상의 해석권을 독점케하고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론가임을 강조함으로써 김일성체제의 후계자로서 김정일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체제 유지 기능

북한정권은 김일성식 사회주의 노선을 강화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방과 개혁, 실용주의 노선의 침투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무화시키는 필사적인 체제관리노력 일환으로서도 주체사상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사태 속에서도 북한이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과 무관치 않다 할 것이다.

3) 대중동원기능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대중동원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경제건설과 혁명과업에 참여시키는 과정에서 물질적인 유인책보다도 사상교육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동기부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청산리 방법', '천리마 운동',

‘3대혁명소조운동’ 등은 구체적인 예들이다.

4) 자주외교의 성취

마지막으로 북한의 외교정책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통하여 자주노선을 천명함으로써 중소분쟁의 와중에서 중립적 태도를 고수할 수 있었고 두 나라로부터의 내정간섭을 어느정도 배제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또한 북한은 자주노선을 통하여 제3세계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제3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민통치의 경험으로 인하여 외세를 배격하는 일반적 경향속에서 북한은 해마다 주체사상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제3세계국가에 주체사상연구회를 조직케하여 자신들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시키려 해왔다.

나. 역기능

1) 경제적 낙후와 정당성의 위기

주체사상의 자주원칙은 국제적 협력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지만 자립경제를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서방세계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패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내재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무한한 노력과 자기희생속에서 오랫동안 유예되었던 대중의 기대, 욕구와 그것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체제역량 사이에서 간격이 계속 확대될때 대중의 불만은 폭발될 수 밖에 없으며 주민의 생활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업적이 없을 때 주체사상은 효율성을 상실한 이데올로기로서 정당성의 근거마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2) 온실효과와 체제와해 가능성

북한정권은 완전한 정보통제와 강도 높은 사상교육을 통하여 대중을 주체사상으로 이론무장 시키려는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철저히 외부로부터 단절된 절해의 고도이다.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며 건전한 비판속에서 상호발전을 도모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염두에 둔다면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북한 사회는 역설적으로 일종의 지적 진공관 사회이면 면역력을 상실한 온실사회이다. 종교적 개종이 그러하듯이 어떤 계기

가 주어질때 유일사상은 사상누각이 될 수 있으며 절대적 교리가 허물어질때 그것은 오히려 취약한 일면을 보여준다. 정보의 개방과 새로운 문물의 도입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정신적 무정부상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것은 북한 체제의 생존능력을 크게 위협할 것이다. 이는 일부 학자들이 김일성 체제의 급격한 와해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논거이기도 하다.

3) 리더쉽의 낙후

주체사상은 1980년대에 와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용주의 노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보다 유연할 자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그것은 이념지향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념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변화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체사상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비교해볼 때 대단히 경직된 이념체제이며 북한은 체제관리에 있어서도 필요이상으로 이념과 집단에 오랫동안 의존함으로써 새로운 리더쉽의 창출에 실패하였다. 즉 북한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전문기술자집단의 역할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체제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김정일 등장이후 기술관료 집단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아직으로서는 이들 집단을 북한사회의 주도세력이라 말할 수 없으며 본격적인 흥전의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4) 외교적 손실

주체사상은 일부 공산국가와 제3세계 속에서의 북한의 위상정립에 기여한 반면 대다수 서방국가로 부터 북한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보다 큰 손실을 해야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북한은 서방국가들로부터 최후의 스탈린 체제로 평가되고 있으면 특히 부자간의 권력승계에 대해서 이들 국가들은 경이로운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이 비합리적이며 혹은 야만적인 사회임을 의미하고 있다.

2.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주체사상의 재구성

김정일은 78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과 85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북한내부에 스며들어 체제를 동요시키는 것을 방지할 필요를 느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하는 합영을 통한 선택적 개방이 초래할 사상적 부작용을 미연에 제거할 조치도 시급한 것이었다.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응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로선의 강조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고양이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 앞에서 행한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라는 담화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그동안 북한의 강력한 이념적 동맹국인 중국과 소련의 체제개혁의 여파로 북한정치가 흔들리는 것을 예방하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소련과는 다른 독자적 사회주의 건설의 이론이 제시되어야 했다. 또한 두 공산국가의 개혁의 배경에는 현존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열등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위의 회복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재정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주축으로 재구성하여 이를 극복하는 이데올로기적 처방을 시도하게 되었다. 김정일에 의하면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많은 사람들도 이루어져 있는 만큼 거기에는 사회적 집단의 생명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별적 사람들의 생명의 중심이 뇌수인 것처럼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은 이 집단 최고의 뇌수인 수령이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처럼 주체사상을 재정의하여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체제에 대한 대중적 기반을 보다 확고히 하여 외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이후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1987년)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1991년)에 이르는 담화를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주체사상과 이에 토대를 둔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고수를 강조하고 있다.

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사회주의 재해석

김정일은 1991년 7월 담화에서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다시 거론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새롭게 체계화된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검토해 보면 크게 두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첫번째는 기존의 주장의 반복으로서 수령에 대한 충성심의 강조를 논리적으로 확대 심화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뇌수'로서의 수령과 인민을 결합시키는 '혈관'으로서의 당, 그리고 '생명체'로서의 인민대중을 삼위일체로 파악하는 일종의 국가유기체설을 전개하고 있다.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구심점이며, 인민대중은 당의 지도하에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함으로써 불멸의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재해석이다. 김정일은 생산관계의 변화에 착안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고전적 사회주의의 개념정의를 거부하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형성 그 자체를 사회주의 이상과 동일시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즉 수령과 당과 인민의 각각 동지애와 혁명적 의리로 결속되어 영생불사의 지복을 보장받는 혈연공동체가 북한이 추구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이상형이다. 김정일은 자본주의가 물질적 생산력에서 사회주의를 능가하지만 세속적인 가치는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실현시킬 수 없으며 사회주의만이 개인의 영생을 보장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위를 재확인하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주의 재해석의 논리는 인간의 현실적 삶을 외면하고 과도하게 정신세계에 몰입함으로써 유물론의 주장과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관념론 심지어는 종교적 논리로의 회귀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주의개념의 재해석 작업이야말로 역설적으로 북한 당국의 정책변화를 정당화해줄 수 있는 원초적인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우위를 대전제로 확신한다면 부차적인 문제라 할 수 있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와 협력이 별 문제가 안된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새로운 사회주의론은 상위의 정신적 가치와 하위의 세속적 가치를 이원화 시킴으로서 중세의 교회국가가 주장했던 양검론(theory of 2 swords)의 논리와 유사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체계화가 보여주고 있는 강화된 혁명적 수령론으로 미루

어 볼 때 북한의 정치적 개혁의 가능성은 난망해 보이며 다만 새로운 사회주의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세속적인 고층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부분적인 경제개혁만이 가능해 보인다.

1986년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의 등장배경으로서 두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소련이나 중국의 체제개혁운동에 편승하여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치세력의 출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다른 하나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낙후에서 비롯하는 체제에 대한 불만과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불신을 회색시키기 위해서이다. 특히 남한과의 상대적 격차를 의식하면서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이념적 재무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나. 현대자본주의론

김정일은 1987년 9월 "반제투쟁의 기치를 한층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담화를 발표하여 86년의 새로운 사회주의론의 연장선상에서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일련의 분석과 처방을 제시하였다.

김정일은 선진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계급과 피착취계급간의 기본적인 모순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제국주의 열강간의 대립과 갈등도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고 단정한다. 김정일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사 발전 과정은 사회주의의 승리의 역사이며 자본주의가 붕괴하고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 김정일은 전술한 내용과 상충되는 대단히 현실적인 논의를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김정일은 현대자본주의의 국제관계가 상호대립관계에서 결탁과 협력의 관계로 변화하였으며 그 결과 파멸에 직면하게 된 자본주의체제는 재생하여 경제 기술적으로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김정일은 다국적 기업의 출현으로 자본의 국제화가 추진되어 착취와 약탈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주의 국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게 됨으로써 상호의존적 관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둘째로 김정일은 현대자본주의의 위기를 정신적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풍요로운 물질생활 뿐만 아니라 풍요

로운 정신문화의 수립까지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자본주의는 물질적 번영을 구하는데 성공했으나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었으며 사회주의만이 양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김정일은 선진자본주의국가의 내부적 변화를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 2차세계대전후 선진자본주의국가내에서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계급구성을 변화시켜 기술노동이나 비생산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인텔리계급을 증대시켰으며 이들 계급은 부르주아사상의 영향을 받아 계급의식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자본가계급에 의해 고안된 노사협조 및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대중의 경제적 요구와 사회복지가 실현되어짐으로써 그들은 현실에 부분적으로 만족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른바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개량주의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김정일은 파격적인 논의를 행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정치경제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돌파구는 자본주의국가가 낡은 국가경제질서를 버리고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여 발전도상국의 경제기술발전을 협력하는 길이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상 자본주의체제 타도를 포기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공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북한과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경제교류를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전통적인 주체이념의 고수를 주장하면서도 현실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제국주의론이나 프롤레타리아혁명론의 수정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체제와 상호공존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현대자본주의에 대한 약간의 인식변화를 곧 북한체제의 개방과 개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북한은 사회주의 기본질서를 고수하는 바탕위에서 선택적인 개혁과 개방만을 시도할 것이고 그 범위와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성있는 예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새롭게 강화된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체제존속과 현실적 문제해결의 이중적과제를 시도하여 상호 모순적인 두 방향-신성화와 세속화-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무게의 중심은 역시 체제방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Ⅲ. 개혁의 전망과 주체사상의 미래

지금까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은 주체사상의 틀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북한사회의 변화는 모두 이 주체사상 아래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주의체제발전에 순기능과 역기능을 다 수행하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근자에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대변력과 국제질서의 재편성 그리고 가중되는 경제난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은 이러한 내외환경의 변화에 조용하기 위한 정책의 조정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다. 김일성과 그의 권력의 승계자인 김정일에게는 지난 70년대 초부터 추진해 온 권력의 승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변화는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권의 변화유형에서 어느 모델에 가까울까?

북한의 지도층이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즉 정치와 경제부문을 비롯한 전면적 체제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겠다. 소련식 체제개혁은 활력있는 사회주의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출발했으나 결국 지난 8월 정변의 실패 이후 사회주의체제의 몰락을 가져오고 말았다. 김일성이 지금까지 행사해온 유일적 지배권의 상실이 초래될 지도 모를 소련식 개혁모델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김일성은 자신이 누리는 독점적, 배타적 권력의 상실은 곧 자신의 정치적 생명의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길을 스스로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개혁로선은 결국 중국식 개혁에의 길이다. 지금까지 다져온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내외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나아가 체제의 활력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즉 정치부문은 기존노선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제력회복을 위한 외교 및 개방정책은 탄력성을 보여줄 것이다. 지난 91년 12월 24일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사령관에 임명된 후 금년 4월 21일에 원수로 추대된 점과 경제특구로 예정된 청진·나진·선봉을 자유무역지대로 개방하겠다는 북한의 최근 발표

등이 이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의 길을 추구해갈 때 북한의 변화를 통제해 온 주체사상은 대외정책의 전환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데올로기 수사상의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경제발전을 위한 외교정책의 변화와 개방정책 그리고 인민대중의 생활향상을 위한 개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과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주체사상이 수행해온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특히 주체사상이 수행해온 체제유지와 대중동원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대변력의 근거에는 개혁과 개방의 과정에서 스며든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상적 와해정책에 따른 수정주의와 이데올로기적 쇠락현상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겨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주체사상교양'을 보다 중요하게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김일성의 행한 최근의 담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사상문화적 침투책동을 악랄하게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사상교양사업을 약화시키면 부르조아 자유화바람이 들어올 수 있다. 사회주의 나라에 부르조아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어 내부로부터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사회주의 사회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극복하고 외부로부터 온갖 불건전한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는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여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사람의 사상의식을 개조하는 사상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이며 사회주의 제도가 선 다음 노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또한 주체사상은 경제건설과 혁명과업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동원기능을 계속 담당할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물질적 보상책보다 정치교육을 통한 대중의 자발적 참여를 유발할 수 밖에 없다. 북한주민들에게 여전히 경제건설현장에 '혁명영웅'과 같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혁명영웅처럼 생활하고 투쟁하자"는 슬로건도 김정일이 창안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통하여 즉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여 경제적 여건이 많이 향상되어 갈때 주체사상과 북한식 사회주의는 어떠할까? 우선 경제가 계속 발전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개혁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곧 북한식 사회주의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주체사상이 경제정책결정에 주는 영향은 현저히 감소되어 실용주의적 정책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 의한 경제성과는 권력계승자인 김정일의 정통성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의 경제가 국제경제 속으로 편입되어 가면서 외부세계로부터 북한인민을 격리해온 폐쇄정책은 효력을 잃게 된다. 그 결과 북한에서도 인민으로부터 정치민주화의 강한 요구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수령-당-인민의 삼위일체적 체제에 대한 개혁내지는 변혁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것은 주체사상에 대한 페레스트로이카가 될 것이다.